

『창세기 23회: 창세기 22:1-8』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은 예외적인 일입니다. 시험은 백성의 순종을 드러내는 수단이고(출 15:25; 16:4; 사 2:22), 두려움을 만들어 내어 경건을 불러일으키고(출 20:20; 시 26:2), 이들의 진정성을 발견하며(신 8:2; 13:3; 대하 32:31), 이들의 번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신 8:16).¹⁾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려면 순종과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개역개정: 경외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성경에서 “시험”과 “두려움”을 함께 제시하는 본문은 단 두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경험(창 22:1, 12)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경험(출 20:20)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스라엘이 십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의 원형입니다.²⁾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믿음을 종종 시험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미래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방식은 주로 ‘미래를 포기하는 것, 손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내가 계획했던 미래의 그림을 이룰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상황을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 시험(22:1-6)

1절, “그 일 후에”는 모리아 시험은 하갈/이스마엘 추방이나 아비멜렉과의 브엘세바 조약으로부터 긴 시간이 흘렀음을 알립니다.³⁾ 그 사이에 이삭은 육체적으로 장성한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1절은 히브리어에서 상당히 독특한 구문입니다. 히브리어 구문은 일반적으로 동사가 주어를 앞섭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이라고 씁니다. 그러나 2절은 “그 하나님, 그가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주어를 먼저 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께서

1) T. Brensinger, “**נס**”, *NIDOTTE* 3.112.

2) Kenneth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27-50:26*(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5), 권대영 역, 『창세기 2』(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361.

3) Kenneth Mathews, 『창세기 2』, 368.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심을 명확히 합니다.⁴⁾

2절,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제발”,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부탁한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한다’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입니다. 전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5번입니다. 다섯 번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이 망설이는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할 때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합리적인 설명, 이해를 넘어서는 일을 시킬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시험을 요구하고 계심을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십니다.**⁵⁾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받습니다. 모리아 땅은 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⁶⁾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독자가 이 이야기에 반감을 느낍니다.⁷⁾ 그들은 이 이야기의 ‘교훈’을, 하나님 뜻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잔인하고 난폭한 행위도 괜찮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 기초한 저서 『공포와 전율』에서 신앙이란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것이라 결론지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 사리에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태껏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어긋났지만, 그럼에도 그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비합리적이었던 것일까요? 유대인의 사고와 상징체계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인 유대인 학자 존 레벤슨이 저서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Beloved Son*(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과 부활)에서 지적했듯이 고대 문화는 우리 문화처럼 개인주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희망과 꿈은 결코 각자의 성공이나 형통,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집안의 일원이었기에, 성공도 가문 전체를 위해서만 추구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성인의 정체성과 가치는 대개 실력과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개인과 가문의 모든 희망과 꿈이 장남에게 걸려 있었습니다. 장남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외과의사와 시각 예술인에게 각각 손과 눈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4)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5),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I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137.

5)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38.

6)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39.

7) Timothy Keller, *Counterfiet gods*(New York: McCormick Literary, 2010), 윤종석 역, 『내가 만든 신』(서울: 두란노, 2017). 1장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음.

레벤슨의 말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문화 배경에 비추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거듭 등장하듯, 이스라엘은 죄성 때문에 백성들이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다만 속전으로 속량이 가능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실 때, 장자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이 곧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장자의 목숨이 속량되지 않는 한 그분의 소유라 하신 것은, 곧 그 당시 문화의 가장 생생한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집안은 영원한 정의를 빚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죄의 빚.

이를 고려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해해봅시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네 아내를 죽이라”라는 말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왔다면 그는 아마 실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는 가문이 가진 죄의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와 의에 대해 하신 말씀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을 그에게 시키실 리 없습니다. 이와 달리 외아들을 취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의 천막에 들어가 아들을 그냥 죽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빚을 회수하고자 하십니다. 집안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직면한 시험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승우는 『사랑이 한 일』에서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랑하더라도 조금만 사랑했다면 나는 그런 요구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사랑하지 않는 아들을 바치라는 요구가 어떻게 시험이 되겠느냐. ... (중략) ...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나 누구를 바치는 것은 힘들지 않지만, 그래서 요구되지 않지만, 사랑하는 무엇이나 누구를 바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요구된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은 힘든 것이다. 아니다.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나 누구를 ‘바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랑하지 않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는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치는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바치는 것이 아니다. 버리는 것이라고 늘 쉽지만은 않지만 바치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 자기를 주는 상징적 표현이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중략) ... 그러니까 ‘바치라’는 명령문이 누구에 의해 나오든, 누구를 향해 나오든, 그것은 자기보다 더 큰 것,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기를 주고라도 지키고 싶은 그

무엇이나 누구를 내놓으라는 요구이다. 자기를 주고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치다’라는 동사에 값한다고 할 수 없다.”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대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바치는 대상은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지를 우리 자신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최고로 사랑합니까? 학업? 쾌락? 즐거움? 미래? 자녀? 친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앨런 로스는 다음처럼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가장 소중한 것과 가장 값진 것, 설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간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⁹⁾

3-6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신 시험에 어떻게 응답할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으로 응답합니다. 이 표현은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합니다.

3절을 보다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창 22:3)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깁니다. 생각해보면, 모리아 산에 가서 나무를 쪼개면 되지, 굳이 짐이 늘어나게 나무를 미리 쪼갤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었을 것입니다.¹⁰⁾ 이전과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전에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로 장자를 대체하겠다고 하나님께 반박했던 태도와는 사뭇 다릅니다.¹¹⁾ 아브라함은 성장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침묵합니다. 3일은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위

8) 이승우, 『사랑이 한 일』(파주: 문학동네, 2020), 99-101.

9) Allen P. Ross, *Creation and Blessing*(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김창동 역, 『창조와 축복』(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591.

10)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43.

11) Kenneth Mathews, 『창세기 2』, 370.

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기간입니다.¹²⁾ 자녀를 죽여야하는 아브라함의 고통은 삼일이나 지속됩니다. 원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마련입니다. 질질 끌지 않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에서 모리아까지는 삼일 길이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심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¹³⁾ 칼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3일 내내 명령을 실행하는 것에 관한 생각에 시달리게 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준비 기간 동안 그의 모든 의식은 더욱 극심하게 고통당했을 것입니다.”¹⁴⁾

이처럼 위대한 순종은 심적, 육적 고통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고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견딜 때, 고난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말합니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6절, 아브라함은 이삭의 어깨에 번제할 나무를 옮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동행합니다.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장면과 유사합니다(요 19:17).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2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6절) 아브라함은 철저히 순종하는 중입니다.

3.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22:7-8)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대답합니다.

“바치라는 요구를 하는 자가 바칠 것을 준비한다는, 준비하는 게 옳다는 이 문장은 바치라는 요구를 하는 자, 즉 바침을 받는 자와 바치는 자의 구별을 없애버리는 효과를 낸다. 바침을 받는 자가 동시에 바치는 자가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간혹 바칠 것을 요구하는 신은 실은 항상 바치는 분이다.

12)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Texas: Word Books, 1987), 윤상문, 황수철 역, 『창세기 16-50』(서울: 솔로몬, 2006), 230.

13) 정우준, 『창세기 I』(서울: 부크크, 2019), 246.

14) 1:565.

바칠 것을 요구할 때 그분이 받으려 하는 것,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가 바친/마련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받은 것, 그분이 바친/마련한 것이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바칠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이 바친/마련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바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분이 바친/마련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바치거나 바치지 않거나 할 뿐이다.”¹⁵⁾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바치는 것도 하나님이 애초에 자신에게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1-8절에서 아브라함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순종하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을 잠재우기 위해 몸을 움직여서 안장을 준비하고, 나무를 쪼갭니다. 그는 삼일 간 길을 걸으면서 고통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렸다는 수준에서 이해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철저한 순종을 통해 내어드렸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 모두가 목표로 삼고 도달해야 할 지점입니다.■

15) 이승우, 『사랑이 한 일』, 113-114.